



## 패션문화의 새로운 시도, 패션 컨설팅

김  
동  
수

동

수

한국의 패션문화는 유행에 민감하다.  
너무 민감해서 정착이 안 된 느낌이다.  
유행하는 것만 입어야 멋쟁이는 아니다.  
이런 한국 패션문화에 독창성을 부여하고자  
패션모델 김동수가 패션컨설팅 스튜디오를  
차렸다. 이제 막 중년에 들어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안정미

자신을 '못생긴 모델'로 각인시킨 여자. 그래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여자. 아직도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인가 꿈같이 벌이고 있는 김동수. 그녀가 사건을 터뜨렸다. '김동수와 함께 찾는 나의 멋'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패션컨설팅 스튜디오를 낸 것이다. 키가 훌쩍 크다. 늘씬하다. 솔직하다. 기자가 만나 본 김동수는 그랬다. 하지만 못생기자는 않았다.

### 새로운 시도, 패션컨설팅 스튜디오

이오 디 김동수('io' di 김동수). 그녀의 패션컨설팅 스튜디오 이름이다. 직역하면 나의 김동수이다. 즉 김동수와 함께 찾는 나의 멋이다. 일방적으로 그녀가 제시하거나 디자이너가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조언과 함께 같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패션컨설팅. 어디서 들어본 듯하기도 하다. 패션과 컨설팅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패션과 컨설팅이 합쳐진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새롭다. 새로운 감각으로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김동수가 발벗고 나섰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소파 위에서 자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가

카메라를 들이밀자 메이크업을 고치고 포즈를 취했다. 역시 직업모델다운 프로 균성이다.

패션컨설팅 스튜디오는 패션스쿨이나 차밍스쿨과는 다르다. 일대 일, 개인대 개인이다. 고객이 방문하면 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만의 멋찾기'를 제안해 주는 것이다. 마치 치과의사가 그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처방을 내려주듯이 고객에게 어울리는 기본 멋내기부터 컬러 테스팅, 코디, 워킹, 메이크업에 이르기 까지 아프지 않는, 아니 오히려 즐거운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다.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는 코디 조언은 자신의 패션스타일을 독창적이면서도 융화되도록 창조해준다. 그녀와 그녀의 매니저 사이에 신한국당 P의원의 이름이 오가는 것을 보면 이미 정치계까지 그녀의 사업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

"나는 성공했고 일인자,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다. 물론 나는 일인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다." 본

인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다. 속뜻은 이렇다. 그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지만 자신이 제일이고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준한 근사치에 가까운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그녀가 외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집에서 모델일에 대해 반대를 했고, 서양사람과 부대끼면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고 하는 그녀는 이런 표현을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솔직하다. 있는 그대로 한 번 부딪쳐 보자는 주의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너무도 솔직하기 때문에 아무 성 발언이라든지 빙말같은 것은 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업하는 여자로서 의리파에 속한다. 한 번 이거다 싶으면 꾸준히 밀고 나간다. 결코 뒤집어 지는 법은 없다.

그녀는 솔직하기 때문에 내숭을 못 한다. 따라서 웃을 때에도 내숭을 못 떨고 잇몸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잇몸 가리는

수술을 해볼까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제는 초월했다. 하지만 남편이 교정을 해보라고 했을 때에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다. 미에 대해 별로 관심없는 그가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외국인인 그의 나라에서는 못 사는 사람이나 이빨이 고르지 않고 웬만한 생활 수준을 갖춘 사람은 치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에 대해 컴플렉스가 많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다.

### 사업의 성공과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희망

“사무실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4월에 열었죠. 잘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직업과 수입에 맞는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저희 스텝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신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사업이 빨리 본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패션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만큼 그녀는 어느 정도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 그녀의 의도는 일반인이나 대중에게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가 한 마디라도 정확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녀는 한국에 혼자 산다. 외국인인 남편과 아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은 사업차 한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다. 홍보, 기획, 전속모델까지 맡아하는 그녀의 시계는 유난히 빨리 돌아간다. 그녀에게 여가란 없다. 따라서 외로울 틈도 없다. 어쩌면 그런 여유는 자신이 믿는 든든한 가족이라는 빼(?)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금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남편의 외조 덕분이다.

### 중년에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

에스콰이어 아웃클래스의 전속모델이자 국민대학교 스포츠모델학과 교수, 주부, 엄마(아직 본인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인. 그에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직함이다. 게다가 패션컨설턴트라는 명함까지 하나 더 생겼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 어렵다기 보다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엄마라고 하는 역할이다.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힘들지만 아들 스스로 버텨 나가야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빠가 엄마 대신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씩씩하게 자란다고 한다.

그가 일을 하는 것은 가족의 협의 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남편이 ‘노우’라고 한



마디만 했도 실은 ‘오예’ 하면서 집안에 들어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적극 밀어준다. 한국에서는 그녀가 필요하다며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한다. 물론 떨어져 살아서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제가 57년 닭띠인데 39살 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기본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도 기를 쓰고 노력한 결과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썩은 다 해보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 들더군요. 참 감사 하더라구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고맙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강박관념처럼 강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중년이란 나이가 그래서 중요한 나이더라구요. 좋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줘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여자. 중년의 멋을 아는 김동수. 그녀는 정말 행복한 여자다.